

大學 出版部の 현황과 개선방향

宋 百 憲
(忠南大 國語國文學科)

대학 내외의 많은 독자들이 양서를 통하여 지적 희열감을 만끽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게 하는 것이 대학출판부의 존재의의다. 대학의 출판문화는 학문연구의 토대 위에서 개화하고 그 결실을 맺게 된다. 우리나라 대학출판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학문연구의 여건을 조성하고 출판문화의 향상에도 공헌해야 할 것이다.

1

인류는 기원 전부터 파피루스나 대나무, 짐승의 가죽 그리고 밀랍 등을 소재로 하여 책을 제작한 바 있다. 이러한 원시적인 도서발행 기술은 그 후 제지법의 발명과 그 확대 보급, 활판인쇄술의 발명, 그리고 인쇄용 잉크 제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커다란 진전을 보기에 이르렀다. 특히 근래에 와서는 컴퓨터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최첨단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전자 책이 선보이는 등 도서출판의 기술도 보다 현대화되고 있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출판이란 인쇄의 과정을 거쳐 각종 서적이나 회화와 같은 것을 제작 내지 발간하여, 이를 세상에 내어 놓음으로써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처럼 출판은 제반

문화를 축적하고 이를 후대에 전승시켜 문화의 발전을 촉진하는 주요한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 나라의 출판 문화는 그 나라 문화 발전의 현주소를 이해하며 나아가서는 그 나라 문화의 장래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과 구실을 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판 문화의 유구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목판 인쇄술을 개발하여 양질의 도서를 발간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 기술의 발달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 출판 문화의 전통은 오늘날에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으며, 작금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출판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더욱이

금년은 '책의 해'로서 출판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출판 문화는 그동안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괄목상대할 정도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출판학이 학문의 한 분야로 수용되어 정립을 보기에 이르렀으며, 80년대에 와서는 대학과 대학원에 출판학 관련 학과나 전공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출판 문화의 향상과 출판학의 학문적 결실과 더불어 주목할 만한 사실 중의 하나는 대학 출판부의 출현이라고 하겠다. 조국광복 이후에 싹을 보이기 시작한 우리나라 대학 출판부는 그 후 점차 수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으며, 대학 교재를 위시하여 학술 도서나 교양 도서와 같은 다양한 전문적 성격을 지닌 학술도서를 출간해 내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대학 출판부는 우리의 출판문화가 질적 양적으로 발전하는 데 적잖이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 출판부는 일반적으로 해당 대학교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일종의 대학 부설기관이다. 그런데 이 대학 출판부는 일반 출판회사와는 달리 전문적인 학술 지식을 축적함과 아울러 이 지식을 대학 내외의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교육시켜 궁극적으로는 학문의 발전을 도모코자 함에 있다. 즉, 대학 출판부는 교수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그 연구 성과를 축적하며, 나아가 이를 널리 보급시키는 등 학술적 교육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학 출판부는 학술적 차원의 비영리적인 출판사로서,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의 기능 일부를 수행함은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출판 문화의 질적인 발달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 출판부의 활동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2

예로부터 대학은 지식의 전당이며 학문의 요람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기실 학문연구는 대학의 중요한 본질 중의 하나라 하겠는데, 이러한 학문 연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해 주는 곳이 바로 대학 출판부라 할 만하다.

대학 출판부는 학문적 연구의 성과를 축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무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일찍이 희랍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우리가 무지하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철학을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로 대학 출판부는 전문적인 학술 도서나 교재 그리고 교양도서 등을 발간하여 학문 연구와 지식의 유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 출판부의 역사는 오랜 전통을 지닌 서구나 이웃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결코 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국 광복후 몇몇 사립대학에서 대학 출판부를 설치 운영하여 60년대에 이르러 본격화된 우리의 대학 출판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6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일부 대학 출판부의 도서 간행이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으며, 그 후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대학 출판부의 양적 확대는 물론 간행도서의 종류나 출판량의 증가 역시 눈에 띄게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대학 출판부의 수가 64개 정도에 달할 만큼 성장을 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대학 출판은 초창기의 유아적 미숙성에서 점차 탈피하여 이제는 일부 대학 출판부의 순 출판 도서의 양과 질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 출판부가 대학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나 대학 출판부에서 간행하는 출판물이 우리의 출판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우리 대학 출판부는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적잖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우선적으로 150여 개에 달하는 전국 대학의 수와 비교할 때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학 출판부의 수가 극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등록된 대학 출판부는 64개 정도로, 이는 전국 대학수의 과반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수이다.

또한 이들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하고 있는 주요 도서들이 그 대부분 기획 출판이 아니라 주로 교양교재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우리의 대학 출판부가 시급히 극복해야 할 문제점 중의 하나임에 틀림 없다. 대학 출판부가 일반 출판사와는 달리 학술적 차원의 출판 문화를 주도한다고 전제할 때, 전문적이고 의욕적인 기획에 의한 학술 도서의 출간은 대학 출판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도해야만 할 것이다.

대학 출판부 중에 편집 시설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는 출판부가 그리 흔하지 않다는 점도 현재의 대학 출판부가 안고 있는 한계 중의 하나다. 실제로 우리 대학 출판부의 편집 시설을 살펴보면 그 실상이 매우 열악한 형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출판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러한 시설상의 문제 역시 시급히 보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 출판부가 상당수의 대학인들에게조차도 인쇄처라고 오인되고 있다는 점 역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인쇄라는 용어와 출판이라는 용어가 동일한 의미를 가진 양 오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 출판부는 양질의 학술 도서를 조판·편집·기획하는 곳이며, 그렇게 해서 출간한 도서를 독자들에게 제공하여 지식을 널리 보급시키는 곳인 것이다. 이러한 대학 출판부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인식되어질 때, 대학 출판부는 명실공히 대학 내에서 제 위치를 점유하게 될 것임은 물론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대학 출판부가 지닌 문제점으로 출판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비전문성을 들 수 있겠다. 한국대학출판부협회에서 발행한 연구 보고서 『한국대학출판부의 실태』(남석순, 1992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18개의 조사대상 대학 출판부 중에서 전문성을 지닌 행정직이 출판부장을 맡고 있는 경우는 3개의 출판부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15개의 대학 출판부는 교수가 출판부장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수직 출판부장의 경우에도 출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전공의 출판부장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보고되고 있다. 또한 부장의 대부분이 임기제로 임명되고 있기 때문에 장

기간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연속 사업의 시행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출판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조차도 한정된 일정 기간만 여기에서 근무하고 그 후에 타부서로 옮기는 경우가 있어 그러한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아울러 오늘날 우리의 대학 출판부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판매상의 어려움을 지적할 수 있다. 대학 출판부가 간행한 각종의 도서들은 대학의 구내서점을 비롯하여 일반 대형 서점에 전시·판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외에 도서관과 같은 공공기관에 출고되기도 하고 소수의 경우이긴 하지만 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대학 출판부에서 간행한 각종의 학술적 전문 도서들은 의견상 다양한 판매경로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그 판매실적은 매우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질의 도서의 발간은 그것을 원하고 그 도서를 읽어주는 독자가 있을 때 보다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한 양질의 도서가 많은 독자의 손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학 출판부가 그 설립 취지에 맞는 좋은 내용의 도서를 간행하고, 대학 내외의 많은 독자들이 양서를 통하여 지적인 희열감을 만끽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는 것은 대학 출판부의 존재 의미이기 때문이다.

3

우리나라 대학 출판부의 역사는 서구나 이웃나라 대학 출판부의 역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짧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 출판부는 탄생한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꾸준히 성장하면서 대학의 학문 연구와 출판문화의 발전을 위해 적잖이 공헌을 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오늘날 우리의 대학 출판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대학 출판은 보다 완성되고 성숙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대학 출판부가 그 본연의 취지에 맞는 책무를 다해 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학 출판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대학 출판부가 학문 활동을 지원하고, 그 연구 업적을 축적시키며, 그것을 대학 내외의 독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소개 전달하여 궁극적으로 학문 연구를 촉진시키는 곳이라는 인식을 보다 확고하게 정립할 때 대학 출판부의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날 대학 출판부의 수가 전국의 대학 수에 비해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도서의 출간이나 그 판매에서 열악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대학 출판부의 역할이나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경영 책임자는 물론이거니와 대학인 모두가 대학 출판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할 때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 보완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대학 출판부에 대한 제도적 경제적 차원에서 지원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의 운영 책임자는 대학 출판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인적 지원은 물론 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원도 지금보다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출판부 직원을 전문화하고 도서의 기획출판을 적극 유도하는 것도 대학 출판부의 내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판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엘리트에 의한 의욕적인 기획 출판이 보다 활성화될 때, 대학의 출판문화는 큰 진전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하다.

대학 출판부에서 간행한 도서의 판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일은 아주 시급한 문제다. 대학 출판부는 주위에 훌륭한 필자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대학 출판부는 이러한 장점을 심분 활용하여 좋은 필진을 찾아 보다 양질의 도서를 발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도서를 발간해 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되지 못하고 전달되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 출판부는 효율적인 광고 및 유

통판매망의 확대에 더욱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읽는 도서량은 3권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양이다. 더욱이 대학 출판부에서 간행하는 도서들은 다른 일반 도서들에 비해 독자의 층이 두텁지도 못하다. 따라서 대학 출판부에서 간행한 도서의 판매량을 하루 아침에 크게 늘린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홍보와 판매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에 대학출판부협회 실무분과 위원회에서 이러한 애로점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지역별로 대형 서점에 일정 기간 대학 출판부에서 간행한 서적을 전시·판매하는 판매장을 개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시 판매를 통해 대학 출판물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이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한층 높아진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사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아울러 대학 출판물의 공동판매 전략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 도서관을 위시한 공공도서관에 공동납품을 통하여 판매량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간의 높은 벽을 허무는 일은 출판부 활성화의 또다른 방법의 하나이다. A대학에서 아무리 양질의 책을 간행했다고 하더라도 B대학에서는 단순히 A대학에서 만든 책이니까 자존심상 이를 채택할 수 없다는 저속한 자존심이 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대학 출판부는 먼저 필진을 자기 대학의 교수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타대학의 교수에게까지 넓혀야 하며 나아가 공동집필 같은 것도 한번쯤 고려할 만하다. 이밖에 대학출판물의 판촉을 위해서는 출판협회 회장단과 실무분과위원회의 임원진이 공동으로 전국 대학 도서관장회나 실무자회에 참석, 출판부의 홍보를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할 것도 지적하고 싶다.

대학은 학문의 상아탑이다. 따라서 대학의 출판 문화 역시 학문 연구의 토대 위에서 개화하고 그 결실을 맺게 된다. 대학의 출판 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대학 출판부는 이러한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그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대학 출판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대학 출판

부가 학문 연구의 여건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함은 물론 우리 출판 문화의 향상에도 보다 많은 공헌이 있기를 바란다. ■

〈投 稿 案 內〉

『大學教育』 제68호('94. 3. 1 발간)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내 용

- ① 대학교육에 관련된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수 및 사회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 사회에 시사할 줄 수 있는 주제에 관한 논의, 각 학과의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활동 등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해외 고등교육의 동향 소개,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으로 다음 칼럼에 해당하는 글
- ② 해당 칼럼 : 「논단」 「학과별 교육과제」 「교수담론」

2. 분 량

- ① 「논단」 「학과별 교육과제」 : 200자 원고지 45장 또는 55장, 워드프로세서로 작성시 7장 또는 8장(행길이 80, 행간 14로 하여 1장당 29행 기준)
- ② 「교수담론」 : 200자 원고지 20장 또는 25장,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실 경우 3장 또는 3장 반

3. 기 한 : 1993년 12월 10일

4. 고 료 : 200자 원고지 1장당 3,000원(체택된 원고에 한함)

5. 제출처 : ① 150-74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앞

② 전화 780-7942, 783-3891, 팩스 780-8311

6. 참고사항

- ①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며,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논단」의 경우, 반드시 200자 내외의 요약문이나 발췌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③ 국한문을 혼용하되 한자를 제한하고 필요한 때에는 원어를 써 주십시오.
- ④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집필자와 협의하여 편집형식에 맞게 원고를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